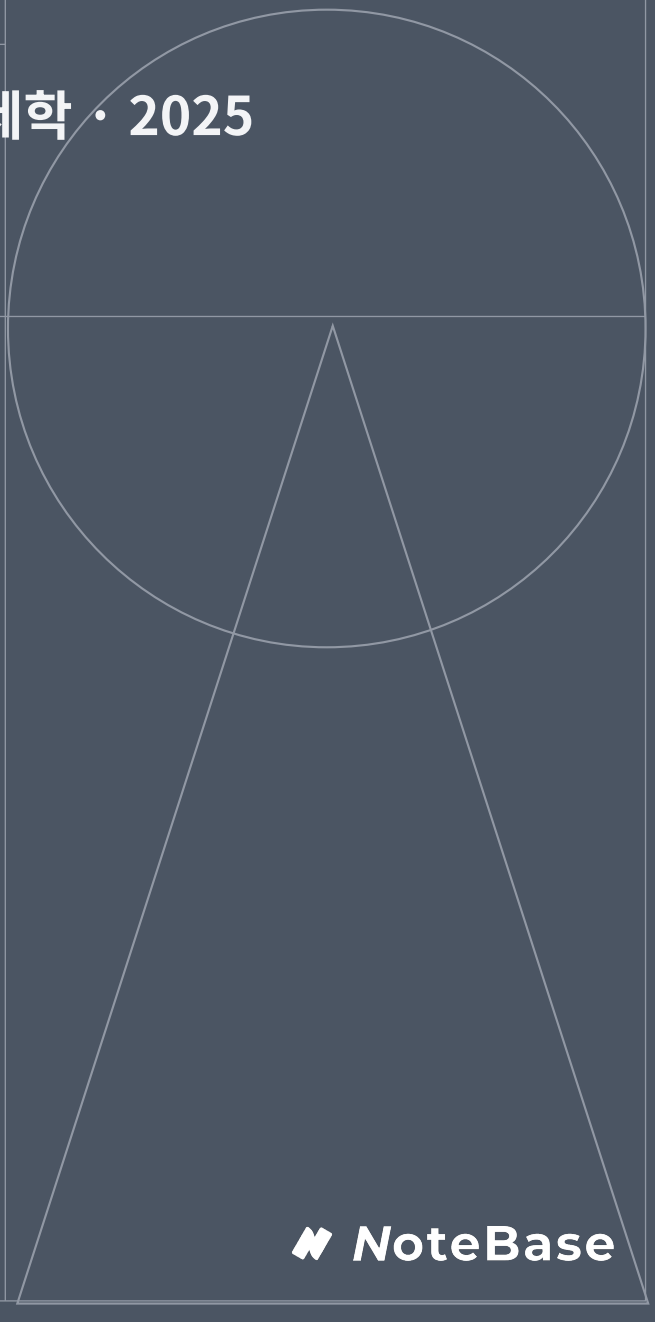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소방/간부후보 · 경제학 · 2025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소방/간부후보 · 경제학 · 2025

공무원/소방/간부후보 · 경제학 · 2025

문 1. A기업은 다음 상황에서 신제품 개발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제시된 내용 이외의 다른 투자안은 고려하지 않는다.)

개발 초기에 투입된 비용은 100억 원이며 회수 불가능한 비용이다. 앞으로 15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신제품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제품 출시로 A기업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편익)은 240억 원이다.

<보 기>
ㄱ. 개발 초기에 투입된 비용은 기회비용에 포함된다.
ㄴ. 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비용은 총 250억 원이다.
ㄷ. 신제품 출시로 예상되는 이익(편익)이 추가로 투입할 비용보다 크므로 신제품 개발을 지속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신제품 개발 지속 여부를 판단할 때 매몰비용을 제외하고 앞으로 발생할 추가비용과 예상 편익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개발 초기에 이미 투입된 비용 100억 원, 앞으로 추가 투입할 비용 150억 원, 신제품 출시로 예상되는 이익(편익) 240억 원이다.
구해야 할 값: 의사결정에서 고려할 관련 비용과 개발 지속 여부이다.
주의할 조건: 개발 초기 비용 100억 원은 회수 불가능하므로 현재 결정에서 제외되는 매몰비용이다.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 이외의 다른 투자안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대체수익은 계산하지 않는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의사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발 지속 예상 편익 > 앞으로 추가로 발생할 관련 비용
이 기준을 쓰는 이유는 이미 지출되어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은 어떤 선택을 해도 되돌릴 수 없으므로 현재 선택의 기회비용이나 관련 비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개발 초기 투입 비용 100억 원은 회수 불가능하므로 매몰비용이다.
2. 현재 결정에서 고려할 비용은 앞으로 추가 투입해야 하는 150억 원이다.
3. 예상 편익 240억 원과 추가비용 150억 원을 비교하면 240억 원이 150억 원보다 크다.
4. 순편익은 240억 원 - 150억 원 = 90억 원으로 양수이므로 신제품 개발을 지속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ㄱ. X
- 개발 초기 투입 비용 100억 원은 이미 지출되어 회수 불가능한 매몰비용이다. 매몰비용은 현재 선택 때문에 새로 포기하는 가치가 아니므로 기회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기회비용에 포함된다'이고, 올바르게는 '매몰비용이므로 의사결정에서 제외된다'이다.

ㄴ. X
- 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비용은 100억 원 + 150억 원 = 250억 원이 아니라 앞으로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150억 원이다. 틀린 표현은 '총 250억 원'이고, 올바르게는 '관련 비용은 150억 원'이다.

ㄷ. O
- 신제품 출시로 예상되는 편익 240억 원이 추가 투입 비용 150억 원보다 크므로 개발을 지속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① X
- ㄱ만 옳다는 선택지이지만 ㄱ은 매몰비용을 기회비용에 포함한 잘못된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ㄱ은 틀리고 ㄷ만 옳다.

② O
- ㄷ만 옳다는 선택지이다. 예상 편익 240억 원이 추가비용 150억 원보다 크므로 ㄷ은 옳고, ㄱ과 ㄴ은 매몰비용 100억 원을 잘못 반영했으므로 틀리다.

③ X
- ㄱ, ㄴ이 옳다는 선택지이지만 ㄱ과 ㄴ은 모두 초기 100억 원을 현재 결정의 비용에 포함한 잘못된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ㄷ만 옳다.

④ X
- ㄴ, ㄷ이 옳다는 선택지이지만 ㄴ의 '총 250억 원'은 매몰비용을 포함한 값이어서 틀리다. 올바르게는 ㄷ만 옳다.

⑤ X
- ㄱ, ㄴ, ㄷ이 모두 옳다는 선택지이지만 ㄱ과 ㄴ은 매몰비용 처리 때문에 틀리다. 올바르게는 ㄷ만 옳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이미 지출한 100억 원을 아깝다고 보아 현재 결정의 비용에 다시 넣게 만드는 것이다. 회수 불가능한 초기 비용은 매몰비용이므로 개발 지속 여부 판단에서는 앞으로 추가로 들어갈 150억 원만 편익 240억 원과 비교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투자 지속 여부 문제는 이미 지출되어 회수 불가능한 비용을 먼저 제거한 뒤, 앞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과 앞으로 얻을 편익만 비교해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매몰비용은 의사결정에서 제외하고, 계속할지는 추가비용과 추가편익으로 판단한다.

문 2. A기업은 노동과 자본만을 사용하여 생산하고, 생산요소의 가격은 일정하다. 한계기술대체율은 체감하고 노동과 자본의 비율에만 의존한다. A기업의 장단기 생산과 비용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기업은 노동과 자본을 모두 사용한다.)

① 단기에 한계 가변 비용은 한계 비용과 동일하다.

② 단기에 평균 비용이 증가하면 한계 비용은 평균 비용보다 크다.

③ 한계생산물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기 한계 비용은 감소한다.

④ 장기에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은 일정하다.

⑤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이 나타나면 장기 평균 비용은 감소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장기와 단기의 생산·비용곡선에서 한계비용, 평균비용, 규모수익, 투입요소 비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단기 비용: 적어도 하나의 투입요소가 고정되어 있어 산출량 변화에 따른 비용 변화는 가변비용에서만 발생한다.
한계비용: 산출량을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추가되는 비용이다.
한계생산물 체감: 가변요소를 더 투입할수록 추가 산출량이 줄어드는 현상이며, 이때 같은 산출량 증가를 위해 더 많은 가변요소가 필요하므로 단기 한계비용은 증가한다.
장기 비용: 모든 투입요소를 조정할 수 있고, 요소가격이 일정하며 한계기술대체율이 투입비율에만 의존하면 비용최소화 투입비율은 산출량과 무관하게 일정해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단기에는 고정비용이 산출량에 따라 변하지 않으므로 산출량을 한 단위 늘릴 때 추가되는 비용은 가변비용의 증가분뿐이다. 따라서 단기 한계 가변비용은 단기 한계비용과 동일하다.

② O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마지막 한 단위의 추가비용인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크다. 한계비용이 평균보다 커야 평균을 위로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기 한계 비용은 감소한다"이다. 한계생산물 체감이 작용하면 가변요소의 추가 생산성이 낮아지므로 같은 산출량 증가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올바르게는 "한계생산물 체감이 작용하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기 한계비용은 증가한다"이다.

④ O
요소가격이 일정하고 한계기술대체율이 노동과 자본의 비율에만 의존하면 비용최소화 조건에서 선택되는 노동·자본 비율이 일정해진다. 따라서 장기에 산출량이 늘어나더라도 투입요소의 절대량은 커질 수 있지만 노동과 자본의 투입비율은 일정하다.

⑤ O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은 모든 투입요소를 같은 비율로 늘릴 때 산출량이 그보다 더 큰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이다. 같은 산출량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평균비용이 작아지므로 장기 평균비용은 감소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한계생산물 체감"을 "비용 감소"와 연결한 것이 함정이다. 생산성이 체감한다는 말은 추가 산출량을 얻기 어려워진다는 뜻이므로, 비용 쪽에서는 단기 한계비용 증가로 나타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산성 개념과 비용 개념은 반대로 연결해 판단한다. 한계생산물이 증가하면 한계비용은 감소하고, 한계생산물이 체감하면 한계비용은 증가한다. 장기 투입비율 문제는 요소가격과 한계기술대체율 조건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단기에서는 고정비용이 변하지 않아 한계비용은 한계가변비용과 같고, 한계생산물 체감은 단기 한계비용 증가로 연결된다.

NoteBase

문 3. X재 시장의 수요 곡선은 $Q^D = 250 - P$이고, 공급 곡선은 $Q^S = 150 + P$이다. 다음은 X재 시장에서 공급자로 참여하고 있는 A기업의 X재 생산에 따른 총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A기업이 X재 거래를 통해 얻는 이윤은? (단, Q^D, Q^S, P는 각각 X재의 수요량, X재의 공급량, X재의 가격이며 A기업은 X재를 1개 단위로 생산한다.)

생산량	1개	2개	3개	4개
총비용	30	75	130	200

① 20

② 25

③ 30

④ 40

⑤ 5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장균형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구한 뒤, 가격수용자인 개별 기업이 한계비용과 가격을 비교하여 이윤극대화 생산량과 이윤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수요곡선은 $Q^D = 250 - P$, 공급곡선은 $Q^S = 150 + P$이다. A기업의 총비용은 생산량 1개부터 4개까지 각각 30, 75, 130, 200이다.
구해야 할 값: A기업이 X재 거래를 통해 얻는 최대 이윤이다.
주의할 조건: A기업은 X재를 1개 단위로 생산하므로 각 생산량별 총수입과 총비용을 직접 비교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시장균형 조건은 $Q^D = Q^S$이다.
이윤은 $\pi = TR - TC = P \times Q - TC$이다.
한계비용은 추가 1개를 생산할 때 늘어나는 총비용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완전경쟁적 가격수용자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그 가격에서 생산량별 이윤이 가장 큰 수량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시장균형을 구하면 $250 - P = 150 + P$이므로 $100 = 2P$, 따라서 $P = 50$이다.
2. A기업의 한계비용은 1번째 30, 2번째 $75 - 30 = 45$, 3번째 $130 - 75 = 55$, 4번째 $200 - 130 = 70$이다. 가격 50 이하인 한계비용은 1번째와 2번째까지이므로 생산량은 2개가 된다.
3. 생산량별 이윤을 확인하면 1개 생산 시 $50 - 30 = 20$, 2개 생산 시 $100 - 75 = 25$, 3개 생산 시 $150 - 130 = 20$, 4개 생산 시 $200 - 200 = 0$이다.
4. 최대 이윤은 2개 생산할 때의 25이다.

선지 판단

① X
- 20은 1개 생산하거나 3개 생산할 때의 이윤이다. 최대 이윤이 아니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 20 → 올바르게는 최대 이윤 25이다.

② O
- 균형가격은 50이고, A기업은 2개를 생산할 때 총수입 100에서 총비용 75를 뺀 이윤 25를 얻는다. 따라서 정답이다.

③ X
- 30은 1개 생산 시 총비용이자 첫 번째 한계비용에 해당하는 값이지 이윤이 아니다. 틀린 표현 30 → 올바르게는 이윤 25이다.

④ X
- 40은 시장가격 50에서 첫 번째 총비용 30을 빼거나, 한계비용 비교를 잘못 적용해서 나오는 값이 아니다. 생산량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면 최대값은 25이다. 틀린 표현 40 → 올바르게는 25이다.

⑤ X
- 50은 시장균형가격이다.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A기업의 거래 이윤을 묻고 있으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 50 → 올바르게는 균형가격 50에서 최대 이윤 25이다.

계산 결과 최대 이윤은 25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시장균형가격 50을 바로 이윤으로 고르거나, 총비용표를 평균비용처럼 처리하는 것이다. 개별 기업의 이윤은 가격 자체가 아니라 총수입 $P \times Q$에서 총비용을 뺀 값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요·공급식이 주어지면 먼저 시장균형가격을 구하고, 가격수용자 기업은 그 가격에서 생산량별 $TR - TC$를 비교한다. 한계비용표가 보이면 가격 이하인 한계비용 구간까지 생산하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가격수용자 기업의 생산 결정은 P와 MC 비교, 이윤 계산은 $TR - TC$ 비교이다. 가격과 이윤을 구분한다.

NoteBase

문 4. 다음은 국내 휘발유 가격이 5% 상승하였을 때 가격 상승 전과 비교한 갑과 을의 휘발유 소비를 나타낸 것이다. 갑과 을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옳은 것은?

소비자	갑	을
휘발유 소비	동일한 수량 소비	동일한 금액 소비

① 갑: 탄력적, 을: 단위 탄력적

② 갑: 비탄력적, 을: 탄력적

③ 갑: 완전 비탄력적, 을: 비탄력적

④ 갑: 완전 비탄력적, 을: 단위 탄력적

⑤ 갑: 완전 비탄력적, 을: 완전 비탄력적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소비 수량 또는 소비 금액의 변화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판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국내 휘발유 가격이 5% 상승하였다.
갑: 가격 상승 전과 후에 동일한 수량을 소비하였다.
을: 가격 상승 전과 후에 동일한 금액을 소비하였다.
구해야 할 값: 갑과 을의 휘발유 수요의 가격탄력성.
주의할 조건: 수량이 그대로인지, 총지출액이 그대로인지가 서로 다른 탄력성 판단 기준이다.

사용할 공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E_d=수요량 변화율가격 변화율
또한 총지출액 기준으로는 가격이 변해도 총지출액이 일정하면 단위 탄력적, 가격과 총지출액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비탄력적, 가격과 총지출액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탄력적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는 가격 상승 후 수량 또는 지출액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주고 있으므로, 수량 변화율과 총지출액 변화를 이용해 탄력성을 판별해야 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갑은 가격이 5% 상승해도 동일한 수량을 소비하였다. 따라서 수요량 변화율은 0이다.
$E_d = \frac{0}{5\%} = 0$
탄력성이 0이면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 완전 비탄력적 수요이다.
2. 을은 가격이 상승했는데도 동일한 금액을 소비하였다. 총지출액은 가격과 수요량의 곱이므로, 가격 상승분만큼 수요량이 줄어 총지출액이 일정해진 것이다.
3. 가격 변화에도 총지출액이 일정한 경우는 총지출법상 단위 탄력적 수요이다.

선지 판단

① X
- 갑을 탄력적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갑은 수량이 전혀 변하지 않았으므로 완전 비탄력적이다. 올바르게는 갑: 완전 비탄력적, 을: 단위 탄력적이다.

② X
- 갑을 비탄력적이라고 한 부분도 정확하지 않고, 을을 탄력적이라고 한 부분도 틀렸다. 갑은 단순히 비탄력적인 정도가 아니라 탄력성이 0인 완전 비탄력적이며, 을은 총지출액이 일정하므로 단위 탄력적이다. 올바르게는 갑: 완전 비탄력적, 을: 단위 탄력적이다.

③ X
- 갑은 맞지만 을을 비탄력적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을은 가격 상승 후에도 동일한 금액을 소비했으므로 총지출액이 일정하고, 이는 단위 탄력적이다. 올바르게는 갑: 완전 비탄력적, 을: 단위 탄력적이다.

④ O
- 갑은 가격 상승에도 동일한 수량을 소비했으므로 완전 비탄력적이다. 을은 가격 상승에도 동일한 금액을 소비했으므로 총지출액이 일정하여 단위 탄력적이다.

⑤ X
- 갑은 맞지만 을을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완전 비탄력적은 가격이 변해도 수량이 변하지 않는 경우인데, 을은 금액이 일정하려면 가격 상승에 따라 수량이 감소해야 한다. 올바르게는 갑: 완전 비탄력적, 을: 단위 탄력적이다.

계산과 총지출 판단 결과 갑은 완전 비탄력적, 을은 단위 탄력적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동일한 수량 소비'와 '동일한 금액 소비'를 혼동하게 하는 것이다. 동일한 수량은 수요량 변화율이 0이라는 뜻이므로 완전 비탄력적이고, 동일한 금액은 총지출액이 일정하다는 뜻이므로 단위 탄력적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 변화 후 수량이 그대로이면 완전 비탄력적으로 판단한다. 가격 변화 후 총지출액이 그대로이면 단위 탄력적으로 판단한다. 가격과 총지출액이 같은 방향이면 비탄력적, 반대 방향이면 탄력적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수량 불변은 완전 비탄력적, 지출액 불변은 단위 탄력적이다.

NoteBase

문 5. X재 시장은 동일한 소비자 100명과 동일한 생산자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장 수요 곡선은 $Q^D = 500 - 100P$, 시장 공급 곡선은 $Q^S = 100P$이다. 시장에서 동일한 공급자가 100명에서 150명으로 증가하면 시장 균형 가격과 시장 균형 거래량은? (단, Q^D, Q^S, P는 각각 X재의 수요량, X재의 공급량, X재의 가격이다.)

① 시장 균형 가격: 1, 시장 균형 거래량: 200

② 시장 균형 가격: 1, 시장 균형 거래량: 400

③ 시장 균형 가격: 2, 시장 균형 거래량: 200

④ 시장 균형 가격: 2, 시장 균형 거래량: 250

⑤ 시장 균형 가격: 2, 시장 균형 거래량: 30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동일한 생산자의 수가 늘어날 때 시장공급곡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반영하여 새로운 시장균형 가격과 거래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시장수요곡선은 $Q^D = 500 - 100P$이다.
처음 생산자 100명일 때 시장공급곡선은 $Q^S = 100P$이다.
생산자가 모두 동일하므로 1명당 공급량은 P이고, 생산자가 150명으로 늘면 시장공급곡선은 $Q^S = 150P$가 된다.
구해야 할 값은 생산자 수 증가 후의 시장균형 가격과 시장균형 거래량이다.

사용할 공식

시장균형 조건은 $Q^D = Q^S$이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가격에서 시장균형이 결정되므로, 생산자 수 증가 후의 공급곡선 $Q^S = 150P$를 수요곡선과 같게 놓아야 한다.

계산 과정

1. 생산자 100명일 때 $Q^S = 100P$이므로 동일한 생산자 1명의 공급량은 P이다.
2. 생산자가 150명이 되면 시장공급량은 $150 \times P = 150P$이다.
3. 새로운 균형조건을 세우면 $500 - 100P = 150P$이다.
4. 이를 풀면 $500 = 250P$, 따라서 $P = 2$이다.
5. 균형거래량은 $Q = 150P = 150 \times 2 = 30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균형가격 1, 균형거래량 200이 아니다. 새로운 공급곡선은 $150P$이므로 균형가격은 2, 균형거래량은 300이다. 틀린 표현은 "1, 200"이고, 올바르게는 "2, 300"이다.

② X
- 균형가격 1, 균형거래량 400이 아니다. $P = 1$이면 수요량은 400이지만 공급량은 150이어서 균형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1, 400"이고, 올바르게는 "2, 300"이다.

③ X
- 균형가격 2는 맞지만 균형거래량 200은 틀리다. 200은 $P = 2$에서 기존 공급곡선 $100P$를 그대로 적용하면 나오는 값이다. 생산자 수 증가 후에는 $Q = 150 \times 2 = 300$이다. 틀린 표현은 "200"이고, 올바르게는 "300"이다.

④ X
- 균형가격 2는 맞지만 균형거래량 250은 틀리다. 250은 새 균형거래량이 아니라 생산자 수 증가를 반영하지 않은 값과 혼동한 결과이다. 생산자 150명일 때의 공급량은 $150P$이므로 $P = 2$에서 거래량은 300이다. 틀린 표현은 "250"이고, 올바르게는 "300"이다.

⑤ O
- 생산자 수 증가 후 시장공급곡선은 $Q^S = 150P$이고, $500 - 100P = 150P$에서 $P = 2$, $Q = 300$이므로 맞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생산자 수가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났는데도 기존 시장공급곡선 $Q^S = 100P$를 그대로 쓰는 것이다. 동일한 생산자가 늘어나면 개별 공급곡선은 변하지 않지만 시장공급곡선은 생산자 수만큼 수평합산되어 $100P$에서 $150P$로 바뀐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동일한 생산자 수가 바뀌는 문제는 먼저 1명당 공급량을 구한 뒤, 바뀐 생산자 수를 곱해 새로운 시장공급곡선을 만든다. 그다음 $Q^D = Q^S$를 적용해 균형가격을 먼저 구하고, 그 가격을 새 공급곡선이나 수요곡선에 대입해 균형거래량을 구한다.

암기 포인트

동일한 생산자 수 증가: 개별공급은 그대로, 시장공급은 생산자 수만큼 수평합산된다.

NoteBase

문 6. 다음은 담배의 수요와 공급 곡선이다. 담배 한 단위를 소비할 때 소비자나 생산자가 아닌 제삼자가 겪는 손실이 10이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에서 담배가 거래되도록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의 거래량과 세금 부과 후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Q^D = 100 - P$
$Q^S = P$

(Q^D, Q^S, P는 각각 담배의 수요량, 담배의 공급량, 담배의 가격이다.)

① 사회적 최적 거래량: 50, 소비자 부담 가격: 50
② 사회적 최적 거래량: 45, 소비자 부담 가격: 55
③ 사회적 최적 거래량: 45, 소비자 부담 가격: 45
④ 사회적 최적 거래량: 40, 소비자 부담 가격: 60
⑤ 사회적 최적 거래량: 40, 소비자 부담 가격: 4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비 1단위당 외부비용 10이 있을 때, 피구세가 만드는 조세 쐐기를 이용해 사회적 최적 거래량과 조세 후 소비자가격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수요곡선은 $Q^D = 100 - P$, 공급곡선은 $Q^S = P$이다.
소비 1단위당 제3자가 겪는 손실은 10이므로 외부비용은 단위당 10이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단위세 $t = 10$을 부과하면 소비자가격 P_c와 생산자수취가격 P_p 사이에 $P_c - P_p = 10$의 쐐기가 생긴다.

사용할 공식

수요: $Q = 100 - P_c$, 공급: $Q = P_p$, 조세 쐐기: $P_c - P_p = t$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단위세가 법적으로 생산자에게 부과되어도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이 서로 달라지고, 그 차이가 세금만큼 벌어지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수요식에서 소비자가격은 $P_c = 100 - Q$이다.
2. 공급식에서 생산자수취가격은 $P_p = Q$이다.
3. 사회적으로 최적인 세금은 외부비용과 같은 $t = 10$이므로 $P_c - P_p = 10$이다.
4. $(100 - Q) - Q = 10$이므로 $100 - 2Q = 10$, $2Q = 90$, $Q = 45$이다.
5.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P_c = 100 - 45 = 55$이다.

선지 판단

① X
- 사회적 최적 거래량 50, 소비자 부담 가격 50은 틀리다. 거래량 50과 가격 50은 외부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적 균형이다. 올바르게는 사회적 최적 거래량 45, 소비자 부담 가격 55이다.

② O
- 계산 결과 사회적 최적 거래량은 45이고 소비자 부담 가격은 55이다. 외부비용 10이 가격 쐐기로 작용해 소비자가격은 생산자수취가격보다 10 높아진다.

③ X
- 사회적 최적 거래량 45는 맞지만 소비자 부담 가격 45는 틀리다. 45는 생산자수취가격 P_p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소비자 부담 가격 55이다.

④ X
- 사회적 최적 거래량 40, 소비자 부담 가격 60은 틀리다. 이는 가격 쐐기를 20으로 둔 것과 같은 결과이다. 올바르게는 단위 외부비용 10만 반영하므로 거래량 45, 소비자 부담 가격 55이다.

⑤ X
- 사회적 최적 거래량 40, 소비자 부담 가격 40은 모두 틀리다. 소비자가격과 생산자수취가격을 같게 두면 조세 쐐기 10이 반영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사회적 최적 거래량 45, 소비자 부담 가격 55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법적 납세자가 생산자라는 말에 매달려 공급곡선만 평행이동시키거나, 소비자가격 P_c와 생산자수취가격 P_p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조세 후에는 하나의 가격이 아니라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 나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부비용이 단위당 주어지면 그 크기만큼 피구세를 두고, $P_c - P_p = t$와 수요식·공급식을 동시에 풀어 거래량을 먼저 구한다. 그다음 문제에서 묻는 가격이 소비자가격인지 생산자수취가격인지 구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외부비용 10은 가격 쐐기 10이다. 소비자가격은 수요식, 생산자수취가격은 공급식에 대입한다.

문 7. 소규모 개방경제인 갑국의 X재에 대한 수요 곡선은 $Q^D = 300 - 5P$이고, 공급 곡선은 $Q^S = P$이며 국제가격은 10달러이다. 갑국은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X재 수입 단위당 30달러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국내 생산자 잉여의 변화분은? (단, Q^D, Q^S, P는 각각 X재의 수요량, X재의 공급량, X재의 가격이다.)

① 100달러

② 300달러

③ 450달러

④ 750달러

⑤ 800달러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수입관세가 국내가격을 올릴 때, 공급곡선을 이용해 국내 생산자잉여의 증가분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수요곡선은 $Q^D = 300 - 5P$, 공급곡선은 $Q^S = P$, 국제가격은 10달러, 수입 단위당 관세는 30달러이다.
구해야 할 값: 관세 부과로 발생한 국내 생산자잉여의 변화분이다.
주의할 조건: 갑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이므로 관세는 국제가격 자체를 바꾸지 않고 국내 소비자가 직면하는 가격만 $10 + 30 = 40$달러로 올린다.

사용할 공식

공급곡선이 $Q^S = P$이면 역공급곡선은 $P = Q$이다. 생산자잉여는 시장가격과 공급곡선 사이의 면적이므로, 원점을 지나는 선형 공급곡선에서는 $PS = \frac{1}{2} \times P \times Q^S$로 계산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국내 생산자잉여는 국내 생산자가 받는 가격과 공급곡선이 결정하는 최소수용가격의 차이를 국내 생산량까지 합한 면적이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자유무역에서 국내가격은 국제가격과 같으므로 $P = 10$이다. 이때 국내 공급량은 $Q^S = 10$이다.
2. 자유무역하 국내 생산자잉여는 $\frac{1}{2} \times 10 \times 10 = 50$이다.
3. 관세 후 국내가격은 $10 + 30 = 40$이다. 이때 국내 공급량은 $Q^S = 40$이다.
4. 관세 후 국내 생산자잉여는 $\frac{1}{2} \times 40 \times 40 = 800$이다.
5. 국내 생산자잉여의 변화분은 $800 - 50 = 750$달러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계산 결과는 750달러이므로 100달러는 틀리다. 틀린 표현 100달러 → 올바르게는 750달러이다.

② X
- 계산 결과는 750달러이므로 300달러는 틀리다. 틀린 표현 300달러 → 올바르게는 750달러이다.

③ X
- 계산 결과는 750달러이므로 450달러는 틀리다. 틀린 표현 450달러 → 올바르게는 750달러이다.

④ O
- 관세 전 생산자잉여는 50달러, 관세 후 생산자잉여는 800달러이므로 증가분은 $800 - 50 = 750$달러이다.

⑤ X
- 800달러는 관세 후 생산자잉여의 총액이지 변화분이 아니다. 틀린 표현 800달러 → 올바르게는 변화분 750달러이다.

계산 결과 750달러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관세 후 생산자잉여 800달러를 그대로 변화분으로 고르는 것이다. 문제는 '국내 생산자잉여의 변화분'을 묻기 때문에 관세 전 생산자잉여 50달러를 반드시 빼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규모 개방경제의 관세 문제에서는 먼저 국내가격을 국제가격+관세로 정하고, 그 가격에서 국내 공급량을 구한 뒤, 생산자잉여의 전후 차이를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관세는 국내 생산자에게 가격 상승 효과를 주므로 생산자잉여는 늘지만, 변화분은 '관세 후 생산자잉여 - 관세 전 생산자잉여'로 구한다.

NoteBase

문 8.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진 재화이다.

② 공유자원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재화이다.

③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공공재의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개별 한계 편익 곡선을 수평으로 합한 것과 한계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의 수량이다.

⑤ 한 사람이 공유자원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공유자원을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는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공재와 공유자원을 배제성 및 경합성 기준으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공재는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이용에서 배제하기 어렵고,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을 줄이지 않는 재화이다. 키워드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다.
공유자원은 이용자를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을 줄이는 재화이다. 키워드는 비배제성과 경합성이다.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가, 공유자원은 과다 사용과 혼잡이라는 공유지 문제가 핵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부분은 "경합성"이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재화이다. 올바르게는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재화이다"가 된다.

② X
- 틀린 부분은 "비경합성"이다. 공유자원은 비배제성은 있지만 사용량이 늘면 다른 사람의 사용 가능성이 줄어드는 경합성이 있다. 올바르게는 "공유자원은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진 재화이다"가 된다.

③ X
- 틀린 부분은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이다. 공공재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올바르게는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가 된다.

④ X
- 틀린 부분은 "개별 한계 편익 곡선을 수평으로 합한 것"이다. 공공재는 여러 사람이 같은 양을 함께 소비하므로 사회적 한계 편익은 각 수량에서 개인별 한계 편익을 수직으로 합해 구한다. 올바르게는 "공공재의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수요곡선, 즉 한계편익곡선의 수직합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의 수량이다"가 된다.

⑤ O
- 공유자원은 비배제성이 있어 누구나 이용하기 쉽지만 경합성이 있어 한 사람의 사용이 다른 사람의 사용 가능성을 줄인다. 따라서 한 사람의 공유자원 사용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 제한이라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②는 공공재와 공유자원의 공통점인 비배제성만 보고 경합성을 바꿔 놓은 함정이다. ④는 공공재 수요곡선의 합산 방식을 사적재처럼 수평합으로 처리한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화를 분류할 때는 먼저 배제 가능한지, 다음으로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량을 줄이는지 확인한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면 공공재, 비배제성과 경합성이면 공유자원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공공재는 비배제·비경합과 무임승차, 공유자원은 비배제·경합과 과다 사용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9. 을은 중고차를 2,800만 원에 시장에 내어놓았다. 다음은 위험 중립적인 갑의 중고차 품질에 따른 지불 용의 금액과 예상 확률을 나타낸 것이다. 중고차의 실제 품질을 정확히 모르는 갑이 중고차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의 기대치와 갑과 을의 거래 성사 여부로 옳은 것은?

구분	좋은 품질	나쁜 품질
지불 용의 금액	3,000만 원	2,000만 원
예상 확률	70%	30%

① 지불 용의 금액의 기대치: 2,300만 원, 거래 성사 여부: ×

② 지불 용의 금액의 기대치: 2,700만 원, 거래 성사 여부: ×

③ 지불 용의 금액의 기대치: 2,700만 원, 거래 성사 여부: ○

④ 지불 용의 금액의 기대치: 2,800만 원, 거래 성사 여부: ×

⑤ 지불 용의 금액의 기대치: 2,800만 원, 거래 성사 여부: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위험중립적 소비자의 기대 지불용의금액을 기대값으로 계산하고, 그 값과 시장가격을 비교해 거래 성사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좋은 품질이면 지불 용의 금액 3,000만 원, 확률 70%이고, 나쁜 품질이면 지불 용의 금액 2,000만 원, 확률 30%이다.
구해야 할 값: 실제 품질을 모르는 갑의 지불 용의 금액의 기대치와 시장가격 2,800만 원에서의 거래 성사 여부이다.
주의할 조건: 갑은 위험중립적이므로 확실한 값이 아니라 확률가중평균인 기대값으로 평가한다.

사용할 공식

기대 지불용의금액은 각 상태의 지불 용의 금액에 그 상태의 확률을 곱해 더한다.
$E(WTP) = WTP_G \times P_G + WTP_B \times P_B$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중고차의 실제 품질을 모르고 좋은 품질과 나쁜 품질이 확률적으로만 주어졌으며, 갑이 위험중립적이어서 기대금액을 기준으로 의사결정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좋은 품질의 기대 기여분은 3,000만 원 × 0.7 = 2,100만 원이다.
나쁜 품질의 기대 기여분은 2,000만 원 × 0.3 = 600만 원이다.
따라서 기대 지불용의금액은 2,100만 원 + 600만 원 = 2,700만 원이다.
시장가격은 2,800만 원이므로 기대 지불용의금액 2,700만 원보다 100만 원 높다. 갑은 이 가격에서는 거래하지 않는다.

선지 판단

① X
기대치는 2,300만 원이 아니라 2,700만 원이다. 2,300만 원은 좋은 품질과 나쁜 품질의 확률을 반대로 적용해 3,000만 원 × 0.3 + 2,000만 원 × 0.7로 계산할 때 나오는 값이다. 틀린 표현 2,300만 원 → 올바르게는 2,700만 원이다.

② O
기대 지불용의금액은 2,700만 원이고, 시장가격 2,800만 원보다 낮으므로 거래는 성사되지 않는다. 기대치와 거래 성사 여부가 모두 맞다.

③ X
기대치는 2,700만 원으로 맞지만, 거래 성사 여부가 O로 되어 있어 틀리다. 기대 지불용의금액 2,700만 원이 시장가격 2,800만 원보다 작으므로 거래는 성사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O → 올바르게는 X이다.

④ X
2,800만 원은 시장가격이지 기대 지불용의금액이 아니다. 기대치는 확률가중평균으로 2,700만 원이다.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맞지만 금액이 틀려 전체 선지는 틀리다. 틀린 표현 2,800만 원 → 올바르게는 2,700만 원이다.

⑤ X
기대 지불용의금액은 2,800만 원이 아니라 2,700만 원이고, 시장가격 2,800만 원보다 낮으므로 거래도 성사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2,800만 원, O → 올바르게는 2,700만 원, X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시장가격 2,800만 원을 기대 지불용의금액으로 착각하거나, 좋은 품질 70%와 나쁜 품질 30%의 확률을 뒤집어 계산하는 데 있다. 또 기대치 2,700만 원을 구한 뒤에도 시장가격 2,800만 원보다 낮다는 비교를 빠뜨리면 ③처럼 거래 성사 여부를 잘못 판단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품질을 모르는 위험중립적 구매자 문제는 상태별 가치에 확률을 곱해 기대값을 먼저 구하고, 그 기대값과 가격을 비교한다. 기대값이 가격 이상이면 거래 가능, 기대값이 가격보다 작으면 거래 불성립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위험중립자는 확률가중평균으로 평가한다. 기대값 2,700만 원 < 가격 2,800만 원이면 사지 않는다.

NoteBase

문 10. X재 시장의 수요와 공급 곡선이 각각 $Q^D = 300 - P$, $Q^S = P$이다. 정부는 $P = 100$에 가격 상한을 시행하고, 지불 용의 금액이 가장 높은 소비자부터 X재를 구매한다. 가격 상한제 시행에 따른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단, Q^D, Q^S, P는 각각 X재의 수요량, X재의 공급량, X재의 가격이다.)

①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②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

③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④ 가격이 50만큼 하락한다.

⑤ 초과 수요가 100만큼 발생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가격상한제가 구속적일 때 거래량, 초과수요,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경제적 순손실을 수요·공급식으로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수요곡선은 $Q^D = 300 - P$, 공급곡선은 $Q^S = P$이다.
가격상한은 $P = 100$에서 시행된다.
지불용의 금액이 가장 높은 소비자부터 구매하므로 실제 거래량 100단위는 수요곡선의 왼쪽, 즉 지불용의가 높은 소비자에게 배정된다.

사용할 공식

자유균형은 $Q^D = Q^S$에서 구한다.
가격상한제 시행 후에는 $P = 100$을 수요·공급식에 대입해 수요량과 공급량을 구하고, 실제 거래량은 $\min(Q^D, Q^S)$이다.
소비자잉여는 지불용의와 실제 가격의 차이 면적, 생산자잉여는 실제 가격과 공급곡선의 차이 면적으로 계산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자유균형은 $300 - P = P$이므로 $P = 150, Q = 150$이다.
2. 가격상한 $P = 100$에서는 $Q^D = 300 - 100 = 200, Q^S = 100$이다. 실제 거래량은 공급량인 100이고 초과수요는 $200 - 100 = 100$이다.
3. 자유균형의 소비자잉여는 $\frac{1}{2} \times (300 - 150) \times 150 = 11,250$이다. 가격상한 후 소비자잉여는 지불용의가 높은 100단위가 구매하므로 $\int_0^{100} (300 - Q - 100) dQ = 15,000$이다. 따라서 소비자잉여는 증가한다.
4. 자유균형의 생산자잉여는 $\frac{1}{2} \times 150 \times 150 = 11,250$이다. 가격상한 후 생산자잉여는 $\frac{1}{2} \times 100 \times 100 = 5,000$이므로 감소한다.
5. 자유균형 총잉여는 22,500, 가격상한 후 총잉여는 $15,000 + 5,000 = 20,000$이다. 경제적 순손실은 2,500이다.

선지 판단

① X
- 소비자잉여는 11,250에서 15,000으로 증가한다. 틀린 표현은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이고, 올바르게는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다'이다.

② O
- 생산자잉여는 11,250에서 5,000으로 감소한다. 가격이 낮아지고 거래량도 150에서 100으로 줄기 때문이다.

③ O
- 총잉여는 22,500에서 20,000으로 감소하므로 경제적 순손실 2,500이 발생한다.

④ O
- 자유균형가격은 150이고 가격상한은 100이므로 가격은 50만큼 하락한다.

⑤ O
- 가격상한 $P = 100$에서 수요량은 200, 공급량은 100이므로 초과수요는 100만큼 발생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함정은 가격상한제가 항상 소비자잉여를 줄인다고 단정하는 데 있다. 이 문제는 지불용의가 가장 높은 소비자부터 구매한다고 했으므로, 낮아진 가격의 이익이 거래하는 소비자에게 집중되어 소비자잉여가 증가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상한제 문제는 먼저 자유균형가격을 구한 뒤 상한가격이 그보다 낮은지 확인한다. 그다음 상한가격에서 수요량, 공급량, 실제 거래량, 배급 방식을 차례로 확인하고 잉여 면적을 계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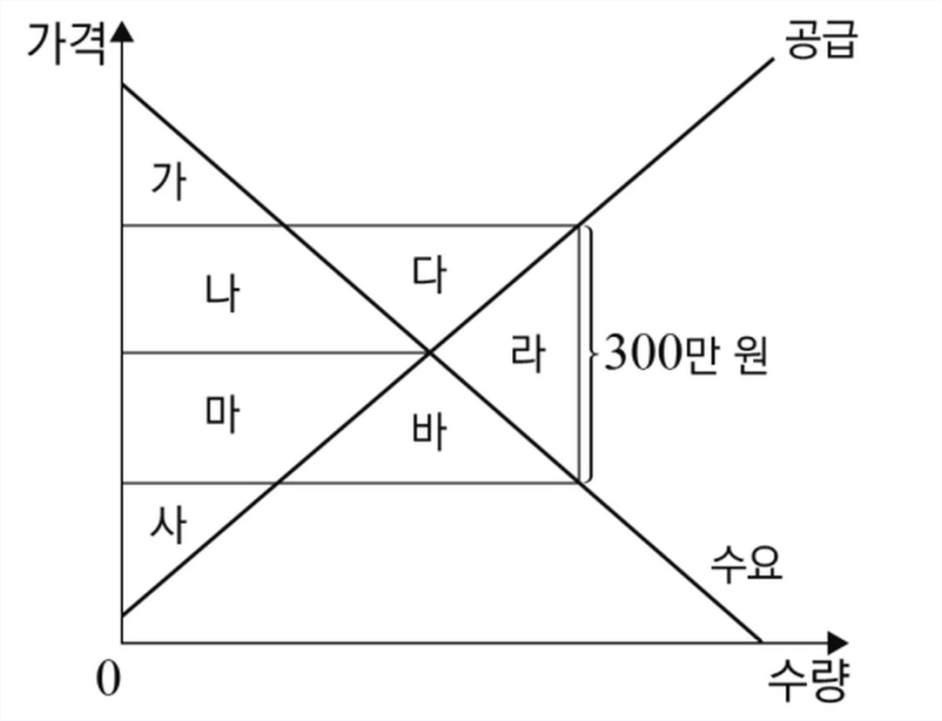
NoteBase

암기 포인트

가격상한이 구속적이면 실제 거래량은 공급량이고, 초과수요는 수요량에서 공급량을 뺀 값이다. 소비자잉여는 배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NoteBase

문 11. 다음은 전기자동차의 수요와 공급 곡선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운행 중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전기자동차의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 대당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보조금 지급을 모두 고려한 총잉여는?



① 가 + 나 + 마 + 바

② 나 + 다 + 마 + 사

③ 가 + 나 + 마 + 사 - 라

④ 가 + 나 + 다 + 마 + 바 + 사 - 라

⑤ 가 + 나 + 마 + 사 - 다 - 라 - 바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단위당 보조금이 있는 수요·공급 그래프에서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정부의 보조금 지출을 함께 반영한 사회적 총잉여를 면적으로 읽는 문제이다.

NoteBase

자료 읽는 순서

1. 보조금 후 거래량은 오른쪽 세로선의 수량이고, 생산자가 받는 가격과 소비자가 내는 가격의 차이가 300만 원이다.
2. 보조금 지출까지 고려한 총잉여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더한 뒤 정부 보조금 지출을 뺀 값이다.
3. 보조금으로 균형거래량보다 많은 수량이 거래되므로, 추가 거래 구간에서 공급곡선이 수요곡선보다 위에 있는 면적 라가 순손실로 남는다.

핵심 근거

보조금이 없을 때 총잉여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사이의 면적인 가+나+마+사이다. 보조금으로 거래량이 오른쪽으로 늘어나면 추가 거래 구간에서는 생산비용이 소비자의 지불용의보다 크므로 라만큼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보조금 지급까지 모두 고려한 총잉여는 가+나+마+사-라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근거 위치: 보조금 후 소비자가 내는 낮은 가격선 위쪽의 수요곡선 아래 면적을 보면 가+나+마+바가 소비자잉여에 해당한다.
- 틀린 표현: 가+나+마+바 → 올바르게는 총잉여가 아니라 소비자잉여이다. 총잉여는 보조금 지출과 후생손실까지 반영한 가+나+마+사-라이다.

② X
- 근거 위치: 생산자가 받는 높은 가격선 아래쪽, 공급곡선 위쪽 면적을 보면 나+다+마+사가 생산자잉여에 해당한다.
- 틀린 표현: 나+다+마+사 → 올바르게는 총잉여가 아니라 생산자잉여이다. 총잉여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에서 정부 보조금 지출을 뺀 가+나+마+사-라이다.

③ O
- 근거 위치: 보조금이 없을 때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사이의 기존 총잉여는 가+나+마+사이고, 보조금으로 늘어난 추가 거래 구간의 순손실은 라이다.
- 따라서 보조금 지급을 모두 고려한 총잉여는 기존 총잉여에서 후생손실 라를 뺀 가+나+마+사-라이다.

④ X
- 근거 위치: 다와 바는 보조금으로 인해 소비자잉여 또는 생산자잉여에 포함되어 보이는 면적이지만, 정부의 보조금 지출을 차감하면 순사회적 잉여로 남지 않는다.
- 틀린 표현: 가+나+다+마+바+사-라 → 올바르게는 다와 바를 더하지 않고 가+나+마+사-라이다.

⑤ X
- 근거 위치: 보조금 후 추가 거래 구간에서 순손실로 남는 면적은 공급곡선과 수요곡선 사이의 라이다.
- 틀린 표현: 가+나+마+사-다-라-바 → 올바르게는 다와 바까지 손실로 빼지 않는다. 정부 지출을 차감하면 다와 바는 이전된 잉여와 상쇄되고, 순손실은 라만 남으므로 가+나+마+사-라이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②는 각각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만 본 것이고, ④와 ⑤는 보조금 지출을 차감할 때 다와 바가 상쇄되는 구조를 놓친 것이다. 보조금은 거래량을 늘리지만, 사회 전체 기준에서는 정부 지출을 빼야 하므로 추가 거래 구간의 순손실 라가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조금 문제의 총잉여는 개별 경제주체의 잉여를 먼저 더한 뒤 정부 지출을 반드시 차감해서 판단한다.
그래프에서는 보조금 전 총잉여에서 보조금 때문에 과다 거래된 구간의 사중손실만 빼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보조금 포함 총잉여는 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정부지출이고, 완전경쟁 균형을 넘어선 추가 거래 구간의 손실 삼각형만큼 줄어든다.

문 12. 독점적 경쟁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장기 균형에서 기업의 이윤은 0이다.

② 기업은 수동적인 가격수용자(price taker)이다.

③ 단기 균형에서 기업은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생산량을 선택하여 이윤을 극대화한다.

④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수평선이다.

⑤ 장기 균형에서 기업은 장기 평균 비용이 가장 적은 수준에서 생산하여 이윤을 극대화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독점적 경쟁시장의 장기 균형과 완전경쟁시장의 장기 균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독점적 경쟁시장: 다수 기업이 차별화된 상품을 팔아 우하향 수요곡선과 약한 가격설정력을 가지는 시장이다.
장기 균형: 진입과 퇴출로 경제적 이윤은 0이 되지만, 완전경쟁처럼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거나 평균비용 최저점에서 생산하지는 않는다.
완전경쟁시장: 개별 기업이 시장가격을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이며 수평 수요곡선에 직면하는 시장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장기에는 이윤이 있으면 기업이 진입하고 손실이 있으면 기업이 퇴출하므로 경제적 이윤은 0이 된다. 독점적 경쟁시장도 장기 균형에서는 초과이윤이 사라진다.

② X
틀린 표현은 '수동적인 가격수용자'이다. 독점적 경쟁기업은 차별화된 상품을 판매하므로 우하향 수요곡선에 직면하고 일정한 가격설정력을 가진다. 올바르게는 '기업은 완전한 가격수용자가 아니라 제한적인 가격설정자이다.'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생산량'이다. 독점적 경쟁기업은 우하향 수요곡선 때문에 한계수입이 가격보다 작고, 이윤극대화 산출량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정해진다. 올바르게는 '기업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생산량을 선택하여 이윤을 극대화한다.'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수요 곡선은 수평선'이다. 수평 수요곡선은 완전경쟁기업의 특징이다. 독점적 경쟁기업은 상품 차별화로 인해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에 직면한다.

⑤ X
틀린 표현은 '장기 평균 비용이 가장 적은 수준에서 생산'이다. 독점적 경쟁의 장기 균형에서는 수요곡선이 평균비용곡선에 접하여 이윤이 0이 되지만, 그 접점은 보통 평균비용 최저점보다 왼쪽에 있어 초과설비가 발생한다. 올바르게는 '장기 균형에서 기업은 평균비용 최저점보다 작은 산출량에서 생산할 수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②와 ④는 완전경쟁기업의 특징인 가격수용자와 수평 수요곡선을 독점적 경쟁기업에 붙인 함정이다. ③과 ⑤는 완전경쟁의 효율적 장기 균형을 독점적 경쟁에도 그대로 적용한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독점적 경쟁은 '장기 이윤 0'은 맞지만 '가격수용자, 수평 수요곡선, 가격과 한계비용의 일치, 평균비용 최저점 생산'은 완전경쟁 쪽 특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독점적 경쟁의 장기 균형은 이윤 0, 우하향 수요,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큼, 초과설비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3. 두 재화 x, y를 소비하는 소비자 갑에게 x재 2단위와 y재 1단위는 완벽하게 대체된다. 예산이 600일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계대체율은 감소한다.

② 효용함수는 $U = \min(x, 2y)$이다.

③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이다.

④ x재의 가격이 10이고 y재의 가격이 40인 경우, 효용 극대화를 위한 x재 소비량은 60이다.

⑤ x재의 가격이 30이고 y재의 가격이 20인 경우, 효용 극대화를 위한 y재 소비량은 0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완전대체재에서 두 재화의 효용 기여도를 세운 뒤, 가격 대비 효용이 큰 재화만 소비하는 코너해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두 재화 x, y는 소비자에게 x재 2단위와 y재 1단위가 완전하게 대체된다.
따라서 y재 1단위의 효용은 x재 2단위의 효용과 같고, 한 예로 효용함수는 $U = x + 2y$로 둘 수 있다.
예산은 600이다.
완전대체재에서는 내부해가 아니라 가격 대비 효용이 더 큰 재화로 예산을 몰아 쓰는 코너해가 나온다.

사용할 공식

효용함수는 $U = x + 2y$로 둘 수 있다.
재화별 가격 대비 효용은 MU_x/P_x, MU_y/P_y로 비교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완전대체재의 효용이 선형이어서 한계효용이 일정하고, 소비자는 같은 1원으로 더 많은 효용을 주는 재화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x재 2단위와 y재 1단위가 같으므로 $MU_x = 1$, $MU_y = 2$로 둘 수 있다.
2. $P_x = 10$, $P_y = 40$이면 $MU_x/P_x = 1/10$, $MU_y/P_y = 2/40 = 1/20$이다. x재의 가격 대비 효용이 더 크므로 전액을 x재에 쓴다.
3. 예산 600을 x재에만 쓰면 $x = 600/10 = 60$이다.
4. $P_x = 30$, $P_y = 20$이면 $MU_x/P_x = 1/30$, $MU_y/P_y = 2/20 = 1/10$이다. y재의 가격 대비 효용이 더 크므로 전액을 y재에 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완전대체재의 한계대체율은 일정하다. 틀린 표현은 "한계대체율은 감소한다"이고, 올바르게는 "한계대체율은 일정하다"이다.

② X
$U = \min(x, 2y)$는 두 재화를 일정 비율로 함께 소비해야 하는 완전보완재 형태이다. 틀린 표현은 "효용함수는 $U = \min(x, 2y)$"이고, 올바르게는 "완전대체재 효용함수는 $U = x + 2y$와 같은 선형 효용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이다.

③ X
완전대체재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게 휘어진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다. 틀린 표현은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이고, 올바르게는 "직선 형태"이다.

④ O
$P_x = 10, P_y = 40$이면 x재의 가격 대비 효용 1/10이 y재의 가격 대비 효용 1/20보다 크다. 따라서 예산 600을 모두 x재에 쓰고 $x = 600/10 = 60$이므로 옳다.

⑤ X
$P_x = 30, P_y = 20$이면 y재의 가격 대비 효용 1/10이 x재의 가격 대비 효용 1/30보다 크다. 따라서 y재 소비량은 0이 아니라 $600/20 = 30$이다. 틀린 표현은 "y재 소비량은 0"이고, 올바르게는 "y재 소비량은 30"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완전대체재와 완전보완재를 혼동하게 하는 것이다. ②의 min 형태는 함께 써야 효용이 늘어나는 완전보완재이고, 완전대체재는 직선 무차별곡선과 일정한 한계대체율을 가진다. 또 ④와 ⑤는 단순히 싼 재화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가격 대비 효용 MU/P를 비교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전대체재 문제는 먼저 교환비율로 선형 효용함수를 세운 뒤, 각 재화의 MU/P를 비교한다. 더 큰 MU/P를 가진 재화에 예산을 모두 쓰고, 두 값이 같을 때만 여러 소비조합이 최적이 된다.

암기 포인트

완전대체재는 직선 무차별곡선, 일정한 한계대체율, 가격 대비 효용 비교, 코너해로 정리된다. min 효용함수는 완전보완재의 표시이다.

NoteBase

문 14. 갑국의 2023년 명목 GDP는 500억 달러이고, 2024년에는 명목 GDP가 546억 달러이며 실질 GDP는 525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3년과 2024년의 GDP 디플레이터(2023년, 2024년)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단, 기준연도는 2023년이다.)

① (91, 100)

② (96, 104)

③ (100, 104)

④ (100, 109)

⑤ (104, 1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GDP 디플레이터 공식과 기준연도 지수를 이용해 2023년과 2024년의 GDP 디플레이터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2023년 명목 GDP는 500억 달러이고 기준연도는 2023년이다. 2024년 명목 GDP는 546억 달러, 실질 GDP는 525억 달러이다.
구해야 할 값: 2023년과 2024년의 GDP 디플레이터이다.
주의할 조건: 기준연도에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게 평가되므로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다.

사용할 공식

GDP 디플레이터=명목 GDP실질 GDP× 100
이 공식을 쓰는 이유: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 대비 명목 GDP의 비율로 물가수준을 지수화한 값이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2023년은 기준연도이므로 GDP 디플레이터는 100이다.
2. 2024년 GDP 디플레이터는 $\frac{546}{525} \times 100$이다.
3. $\frac{546}{525} = 1.04$이므로 2024년 GDP 디플레이터는 104이다.
4. 따라서 2023년과 2024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각각 $(100, 104)$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91, 100)은 2023년을 100으로 두지 않았고 2024년도 104가 아니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 (91, 100) → 올바르게는 (100, 104)이다.
② X: (96, 104)는 2024년 값 104는 맞지만 2023년 기준연도 값을 100이 아니라 96으로 보아 틀리다. 틀린 표현 2023년 96 → 올바르게는 2023년 100이다.
③ O: 2023년은 기준연도라서 100이고, 2024년은 546/525 × 100 = 104이므로 (100, 104)가 맞다.
④ X: (100, 109)는 2023년 100은 맞지만 2024년 값을 명목 GDP 증가율처럼 처리한 결과에 가깝다. 틀린 표현 2024년 109 → 올바르게는 2024년 104이다.
⑤ X: (104, 100)은 두 연도의 값을 바꾸어 놓은 형태이다. 틀린 표현 (104, 100) → 올바르게는 (100, 104)이다.
계산 결과 (100, 104)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기준연도 디플레이터를 반드시 100으로 둔다는 점과, 2024년에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야 한다는 점이다. 명목 GDP 증가율 546/500을 쓰거나 실질 GDP와 명목 GDP의 분모·분자를 바꾸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GDP 디플레이터 문제는 기준연도인지 먼저 확인하고, 비교연도는 명목 GDP/실질 GDP× 100으로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기준연도 GDP 디플레이터는 100이고,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을 실질로 나눈 뒤 100을 곱한다.

NoteBase

문 15. A지역의 t년 생산 가능 인구가 1,000만 명, 경제활동인구가 800만 명, 실업자 수가 20만 명이다. t+1년에 다른 상황은 변함이 없고 실업자 중 5만 명이 구직을 단념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t년 실업률은 2%이다.

② t년 경제활동참가율은 80%이다.

③ t년과 t+1년 취업자 수는 같다.

④ t년에 비해 t+1년 실업률은 하락한다.

⑤ t년에 비해 t+1년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의 분모를 구분하고, 구직단념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이용해 각 지표의 변화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t년 생산가능인구는 1,000만 명, 경제활동인구는 800만 명, 실업자는 20만 명이다.
t년 취업자 수는 경제활동인구 800만 명에서 실업자 20만 명을 뺀 780만 명이다.
t+1년에 다른 조건은 변하지 않고 실업자 중 5만 명이 구직을 단념하므로, 이 5만 명은 취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다.
t+1년 실업자는 15만 명, 경제활동인구는 795만 명, 취업자는 780만 명이다.

사용할 공식

실업률=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 100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 100
실업률은 실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비율이고,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비율이므로 이 두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t년 실업률은 다음과 같다.
t년 실업률=(20)/(800)× 100=2.5\%
t년 경제활동참가율은 다음과 같다.
t년 경제활동참가율=8001,000× 100=80\%
t+1년에 구직을 단념한 5만 명은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지므로 경제활동인구는 795만 명이 되고, 실업자는 15만 명이 된다.
t+1년 실업률=(15)/(795)× 100≈ 1.89\%
t+1년 경제활동참가율=7951,000× 100=79.5\%
각 분수의 단위는 만 명으로 분자와 분모에서 서로 약분되므로 그대로 계산한다.

선지 판단

① X. t년 실업률은 실업자 20만 명을 경제활동인구 800만 명으로 나눈 2.5%이다. 틀린 표현은 "2%"이고, 올바르게는 "t년 실업률은 2.5%이다"이다.
② O. t년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 800만 명을 생산가능인구 1,000만 명으로 나눈 80%이다.
③ O. 구직을 단념한 5만 명은 취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다. 따라서 취업자 수는 t년 780만 명, t+1년 780만 명으로 같다.
④ O. t+1년 실업률은 약 1.89%로 t년의 2.5%보다 낮다.
⑤ O. t+1년에 경제활동인구가 800만 명에서 795만 명으로 줄고 생산가능인구는 1,000만 명으로 그대로이므로 경제활동참가율은 80%에서 79.5%로 하락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①뿐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구직단념자를 취업자로 착각하는 것이다. 실업자가 구직을 단념하면 취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므로, 실업자 수와 경제활동인구가 함께 감소하고 취업자 수는 변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노동시장 지표 문제는 먼저 취업자 수, 실업자 수, 경제활동인구, 생산가능인구를 각각 정리한 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를 분모로,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를 분모로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구직단념자는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이다. 실업률의 분모는 경제활동인구이고, 경제활동참가율의 분모는 생산가능인구이다.

NoteBase

문 16. A, B국이 X, Y재를 생산하는 리카도 모형에서 각국이 노동 1단위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은 다음과 같다. A국은 노동 100단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양국 모두 노동만을 생산요소로 사용하며 생산가능곡선은 직선이다.)

구분	A국	B국
X재	5	10
Y재	2	6

① A국은 X재 생산에 절대우위를 갖는다.

② A국은 Y재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③ 국제무역이 없을 경우 A국에서 X재 2단위와 Y재 5단위가 교환된다.

④ 국제무역에서 X재와 Y재의 교환비율이 1:1이면 B국은 Y재만을 생산한다.

⑤ 국제무역에서 X재와 Y재의 교환비율이 2:1이면 A국은 X재 250단위와 Y재 125단위를 소비할 수 있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리카도 모형에서 노동 1단위당 생산량으로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를 구분하고, 교역조건이 주어졌을 때 소비가능조합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A국은 노동 1단위로 X재 5단위 또는 Y재 2단위를 생산한다. B국은 노동 1단위로 X재 10단위 또는 Y재 6단위를 생산한다. A국의 노동 보유량은 100단위이므로 A국이 X재에 완전특화하면 X재 500단위를 생산할 수 있다.

사용할 공식

절대우위는 같은 노동 1단위로 더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가진다. 비교우위는 기회비용이 더 낮은 국가가 가진다.
A국의 X재 1단위 기회비용은 2/5단위의 Y재이고, Y재 1단위 기회비용은 5/2단위의 X재이다.
B국의 X재 1단위 기회비용은 6/10단위의 Y재이고, Y재 1단위 기회비용은 10/6단위의 X재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A국의 X재 기회비용은 $0.4Y$, B국의 X재 기회비용은 $0.6Y$이므로 A국은 X재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반대로 A국의 Y재 기회비용은 $2.5X$, B국의 Y재 기회비용은 약 $1.67X$이므로 B국은 Y재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교역비율이 $X:Y=2:1$이면 X재 2단위로 Y재 1단위를 얻는 조건이다. A국이 X재 500단위를 생산한 뒤 X재 250단위를 수출하면 Y재 125단위를 얻고, X재 250단위가 남는다.

선지 판단

① X. A국은 X재 생산에 절대우위를 갖는다는 표현이 틀렸다. 노동 1단위당 X재 생산량은 A국 5단위, B국 10단위이므로 X재의 절대우위는 B국에 있다.

② X. A국은 Y재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는다는 표현이 틀렸다. Y재 1단위의 기회비용은 A국이 $2.5X$, B국이 약 $1.67X$이므로 Y재의 비교우위는 B국에 있다.

③ X. 국제무역이 없을 경우 A국에서 X재 2단위와 Y재 5단위가 교환된다는 표현이 틀렸다. A국에서는 X재 1단위의 기회비용이 $0.4Y$이므로 X재 2단위는 $0.8Y$와 대응된다. 올바르게는 A국에서 Y재 1단위가 X재 2.5단위와 대응된다.

④ X. 교환비율이 $X:Y=1:1$이면 B국은 Y재만 생산한다는 표현이 틀렸다. B국에서 X재 1단위의 기회비용은 $0.6Y$인데 시장에서 X재 1단위가 Y재 1단위와 교환되므로, B국은 X재 생산이 더 유리하다. 올바르게는 이 조건에서 B국은 Y재만 생산하지 않는다.

⑤ O. 교환비율이 $X:Y=2:1$이면 A국은 비교우위가 있는 X재에 특화하여 X재 500단위를 생산할 수 있다. 그중 X재 250단위를 Y재 125단위와 교환하면 X재 250단위와 Y재 125단위를 소비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를 혼동하게 하는 데 있다. B국은 두 재화 모두 노동 1단위당 생산량이 더 많아 절대우위를 갖지만, 기회비용을 비교하면 A국은 X재, B국은 Y재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또한 ⑤의 $X:Y=2:1$은 X재 2단위와 Y재 1단위의 교환으로 읽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리카도 모형에서는 먼저 노동 1단위당 생산량으로 절대우위를 확인하고, 그다음 상대생산량을 이용해 기회비용을 계산한다. 교역조건 문제는 특화 후 총생산량에서 수출량을 빼고 수입량을 더해 최종 소비조합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절대우위는 생산량 비교, 비교우위는 기회비용 비교이다. A국은 X재, B국은 Y재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NoteBase

문 17. 다음 거시경제 모형에서 정부지출이 200만큼 늘어났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총수요 증가분의 최대치는? (단, 투자지출의 변동은 없다.)

$Y^D = C + I + G$
$Y = Y^D$
$C = 300 + 0.8Y$
(Y^D는 총수요, Y는 총소득, C는 소비지출, I는 투자지출, G는 정부지출이다.)

① 160
② 200
③ 800
④ 1,000
⑤ 1,2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케인즈 단순 거시경제 모형에서 정부지출 승수를 이용해 정부지출 증가가 총수요를 얼마나 늘리는지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소비함수는 $C = 300 + 0.8Y$이므로 한계소비성향은 0.8이다.
구해야 할 값: 정부지출 G가 200만큼 증가할 때의 총수요 증가분이다.
주의할 조건: 투자지출 I의 변동은 없으므로 총수요 변화는 정부지출 변화와 그에 따른 유발소비 변화로만 결정된다.

사용할 공식

정부지출 승수는 $\frac{1}{1-MPC}$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균형에서 $Y = Y^D = C + I + G$이고 소비가 소득의 함수 $C = 300 + 0.8Y$로 주어졌으므로, 정부지출이 늘면 소득이 늘고 그 소득 증가가 다시 소비 증가를 유발하는 승수 과정이 발생한다.

계산 과정

1. 한계소비성향은 소비함수 $C = 300 + 0.8Y$의 Y 계수이므로 $MPC = 0.8$이다.
2. 정부지출 승수는 $\frac{1}{1-0.8} = \frac{1}{0.2} = 5$이다.
3. 정부지출 증가분이 200이므로 총수요 증가분은 $5 \times 200 = 1,00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계산 결과는 1,000이므로 160은 맞지 않다. 틀린 표현은 '160'이고, 올바르게는 '1,000'이다. 160은 정부지출 증가분 200에 한계소비성향 0.8을 단순히 곱한 값으로, 승수 효과 전체를 반영하지 못한다.

② X
- 계산 결과는 1,000이므로 200은 맞지 않다. 틀린 표현은 '200'이고, 올바르게는 '1,000'이다. 200은 정부지출의 직접 증가분만 본 값이며, 소득 증가가 소비 증가를 유발하는 간접 효과를 빠뜨린 것이다.

③ X
- 계산 결과는 1,000이므로 800은 맞지 않다. 틀린 표현은 '800'이고, 올바르게는 '1,000'이다. 800은 총소득 증가분 1,000 중 유발소비 증가분 $0.8 \times 1,000$에 해당할 수 있으나, 문제는 유발소비가 아니라 총수요 증가분을 묻는다.

④ O
- 정부지출 승수가 5이고 정부지출 증가분이 200이므로 총수요 증가분은 $5 \times 200 = 1,000$이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⑤ X
- 계산 결과는 1,000이므로 1,200은 맞지 않다. 틀린 표현은 '1,200'이고, 올바르게는 '1,000'이다. 1,200은 직접 증가분 200과 유발소비 1,000을 중복해 더한 식의 오답값으로 볼 수 있으며, 승수 계산 결과 자체가 총수요 증가분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총수요 증가분'과 '정부지출의 직접 증가분' 또는 '유발소비 증가분'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②는 직접 증가분만 본 값이고, ③은 총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분만 본 값이며, ⑤는 승수 결과에 직접 증가분을 다시 더한 중복 계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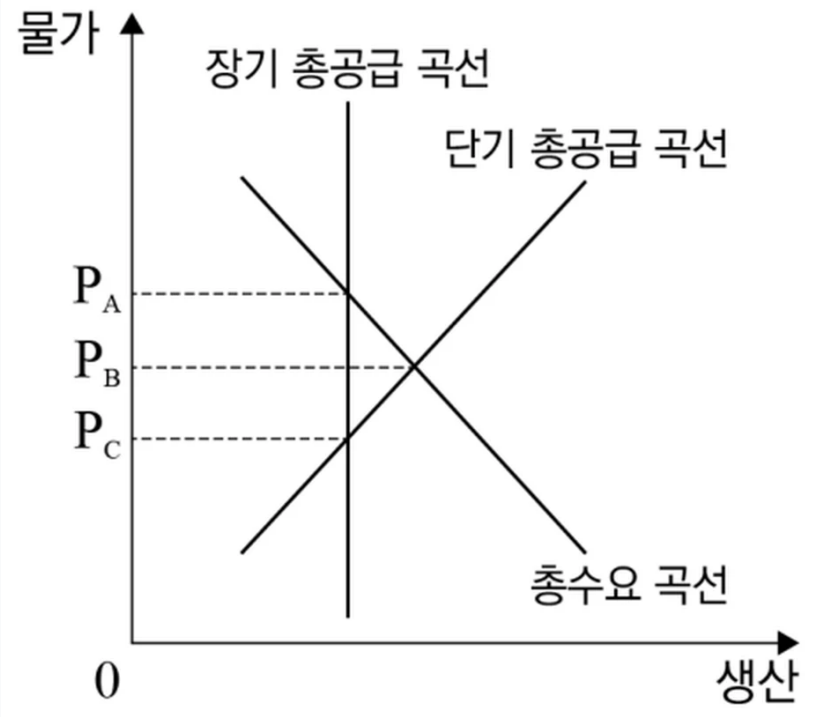
정부지출 변화와 소비함수가 함께 나오면 먼저 소비함수의 Y 계수에서 MPC를 찾고, 정부지출 승수 $\frac{1}{1-MPC}$를 계산한 뒤, 그 승수에 정부지출 변화분을 곱해 총수요 또는 균형소득 변화분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단순모형 정부지출 승수는 $\frac{1}{1-MPC}$이고, 승수 계산 결과는 직접 효과와 유발소비 효과를 모두 포함한 총변화분이다.

NoteBase

문 18. 다음은 장기 총공급 곡선, 단기 총공급 곡선과 총수요 곡선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단기 균형에서 실제 물가와 예상한 물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① 실제 물가: P_A, 예상한 물가: P_A

② 실제 물가: P_A, 예상한 물가: P_C

③ 실제 물가: P_B, 예상한 물가: P_A

④ 실제 물가: P_B, 예상한 물가: P_C

⑤ 실제 물가: P_C, 예상한 물가: P_B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총수요 곡선과 단기 총공급 곡선의 교점에서 실제 물가를 읽고, 단기 총공급 곡선이 장기 총공급선과 만나는 지점에서 예상한 물가를 읽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세로축은 물가, 가로축은 생산임을 확인한다.
2. 실제 단기 균형은 총수요 곡선과 단기 총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므로 물가는 P_B이다.
3. 단기 총공급 곡선은 예상 물가가 주어진 상태의 곡선이므로, 생산이 장기 균형 산출량인 장기 총공급선 위에 있을 때의 물가가 예상한 물가이다. 그래프에서는 이 값이 P_C이다.

NoteBase

핵심 근거

총수요 곡선과 단기 총공급 곡선의 교점은 점선 가격 P_B에 있다. 단기 총공급 곡선이 수직인 장기 총공급선과 만나는 지점은 점선 가격 P_C에 있다. 따라서 실제 물가는 P_B, 예상한 물가는 P_C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근거 위치: 실제 단기 균형점은 총수요 곡선과 단기 총공급 곡선의 교점이다.
- P_A는 장기 총공급선과 총수요 곡선이 만나는 물가이지, 실제 단기 균형 물가가 아니다. 또한 예상한 물가는 P_A가 아니라 단기 총공급 곡선이 장기 총공급선과 만나는 P_C이다. 틀린 표현 P_A, P_A → 올바르게는 P_B, P_C이다.

② X
- 근거 위치: 예상한 물가는 단기 총공급 곡선이 장기 총공급선과 만나는 P_C로 맞지만, 실제 물가가 잘못되어 있다.
- 실제 물가는 총수요 곡선과 단기 총공급 곡선의 교점인 P_B이다. 틀린 표현 실제 물가 P_A → 올바르게는 실제 물가 P_B이다.

③ X
- 근거 위치: 실제 단기 균형점은 P_B이므로 실제 물가는 맞지만, 예상한 물가가 잘못되어 있다.
- P_A는 총수요 곡선이 장기 총공급선과 만나는 점의 물가이고, 단기 총공급곡선에 반영된 예상한 물가는 P_C이다. 틀린 표현 예상한 물가 P_A → 올바르게는 예상한 물가 P_C이다.

④ O
- 근거 위치: 총수요 곡선과 단기 총공급 곡선의 교점은 P_B, 단기 총공급 곡선과 장기 총공급선의 교점은 P_C이다.
- 실제 물가는 단기 균형에서 결정되는 P_B이고, 예상한 물가는 단기 총공급곡선을 그릴 때 전제된 P_C이므로 바르게 짝지은 선택지이다.

⑤ X
- 근거 위치: 예상한 물가는 P_C이고 실제 물가는 P_B이다.
- P_C는 단기 총공급 곡선이 장기 총공급선과 만나는 점의 물가이므로 예상한 물가에 해당한다. P_B는 실제 단기 균형 물가이다. 틀린 표현 실제 물가 P_C, 예상한 물가 P_B → 올바르게는 실제 물가 P_B, 예상한 물가 P_C이다.

오답 포인트

장기 총공급선과 총수요 곡선의 교점인 P_A를 실제 단기 균형으로 착각하면 ①, ②, ③으로 흐르기 쉽다. 이 문제의 실제 물가는 단기 균형에서 결정되므로 총수요 곡선과 단기 총공급 곡선의 교점인 P_B를 읽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제 물가는 총수요 곡선과 단기 총공급 곡선의 교점에서 판단한다. 예상한 물가는 단기 총공급 곡선 자체에 반영된 값이므로, 단기 총공급 곡선이 장기 총공급선과 만나는 지점의 물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AD-SRAS 교점은 실제 물가, SRAS-LRAS 교점은 예상 물가이다.

NoteBase

문 19. 각국 경제에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각각 10%, 5%이고 필립스 곡선이 $\pi = \pi^e - 0.5(u - 0.05)$이다. 단기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5%로 낮추면 실업률은 얼마인가? (단, π, π^e, u는 각각 소수로 표현된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실업률이다.)

① 0%

② 5%

③ 10%

④ 15%

⑤ 2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정된 단기 필립스곡선 $\pi = \pi^e - 0.5(u - 0.05)$에서 목표 인플레이션에 필요한 실업률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현재 인플레이션 $\pi = 0.10$, 현재 실업률 $u = 0.05$, 필립스곡선 $\pi = \pi^e - 0.5(u - 0.05)$이다.
구해야 할 값: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0.05로 낮출 때의 실업률 u이다.
주의할 조건: 기대 인플레이션은 변화가 없으므로 먼저 현재 상황에서 π^e를 구한 뒤 같은 π^e를 사용한다.

사용할 공식

$\pi = \pi^e - 0.5(u - 0.05)$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문제에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관계가 필립스곡선으로 직접 주어졌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정되어 목표 인플레이션을 만족하는 u를 대입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현재 상황에서 $u = 0.05$이므로 $u - 0.05 = 0$이다.
$0.10 = \pi^e - 0.5(0.05 - 0.05) = \pi^e$
따라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pi^e = 0.10$이다.
2. 인플레이션 목표 $\pi = 0.05$와 $\pi^e = 0.10$을 같은 필립스곡선에 대입한다.
$0.05 = 0.10 - 0.5(u - 0.05)$
3. 정리하면 $0.5(u - 0.05) = 0.05$, $u - 0.05 = 0.10$이므로 $u = 0.15$이다.
따라서 실업률은 15%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계산 결과는 실업률 15%이다. 0%는 틀린 표현이고, 올바르게는 실업률이 15%이다.

② X
- 5%는 초기 실업률이다. 인플레이션을 10%에서 5%로 낮추려면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수준인 5%에 머무를 수 없고, 올바르게는 실업률이 15%가 된다.

③ X
- 10%는 기대 인플레이션 또는 초기 인플레이션 10%와 혼동한 값이다.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실업률이므로 올바르게는 15%이다.

④ O
- $\pi^e = 0.10$을 유지한 채 $\pi = 0.05$를 대입하면 $u = 0.15$가 나오므로 15%가 맞다.

⑤ X
- 20%는 $u - 0.05 = 0.10$에 기존 5%를 잘못 더하거나 계수 처리를 과도하게 한 값으로 볼 수 있다. 올바르게는 $0.05 + 0.10 = 0.15$, 즉 15%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기대 인플레이션 π^e를 별도로 구하지 않고 바로 목표 인플레이션 5%를 실업률로 착각하게 하는 점이다. 현재 $u = 0.05$에서는 필립스곡선의 괄호항이 0이므로 $\pi^e = 10\%$가 먼저 확정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필립스곡선 계산형 문제는 현재 조건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먼저 찾고, 기대 인플레이션 변화 여부를 확인한 뒤, 목표 인플레이션을 대입해 실업률을 역산한다.

암기 포인트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정된 필립스곡선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높아진다.

NoteBase

문 20. 갑국의 중앙은행은 예금에 대해 지급준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급준비율이 10%이다. 갑국의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1조 원을 대출해 주면 늘어나는 예금의 최대 금액은? (단, 갑국 경제주체는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모두 예금을 한다고 가정한다.)

① 1,000억 원

② 9,000억 원

③ 1조 원

④ 9조 원

⑤ 10조 원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급준비율로 예금승수를 구한 뒤, 최초 대출 1조 원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최대 예금 총액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지급준비율 10%, 최초 대출액 1조 원
구해야 할 값: 시중은행에 1조 원을 대출해 줄 때 늘어나는 예금의 최대 금액
주의할 조건: 모든 경제주체가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모두 예금하므로 현금 누출이 없다. 따라서 단순 예금창조 모형의 최대 예금 증가액을 구한다.

사용할 공식

예금승수는 다음과 같다.
예금승수=1지급준비율

최대 예금 증가액은 다음과 같다.
최대 예금 증가액=최초 대출액×예금승수

현금 누출이 없고 은행이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최대 예금창조 상황이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지급준비율 10%를 소수로 바꾸면 0.1이다.
2. 예금승수는 다음과 같다.
예금승수=(1)/(0.1)=10
3. 최초 대출액 1조 원에 예금승수 10을 곱하면 최대 예금 증가액은 다음과 같다.
1조 원× 10=10조 원

선지 판단

① X
- 1,000억 원은 지급준비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틀린 표현은 "예금의 최대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최대 예금 증가액 10조 원이다.

② X
- 9,000억 원은 최초 1조 원 중 지급준비금 1,000억 원을 제외한 다음 단계 대출 가능액이다. 틀린 표현은 첫 단계의 추가 대출액을 전체 예금 증가액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여러 차례 예금과 대출이 반복된 최대 예금 증가액 10조 원이다.

③ X
- 1조 원은 최초 대출액 자체이다. 틀린 표현은 최초 투입액만을 예금 증가의 최대치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최초 대출액에 예금승수 10을 곱한 10조 원이다.

④ X
- 9조 원은 최초 대출액 1조 원을 제외한 파생예금 증가분만 볼 때 나올 수 있는 값이다. 이 문제는 "늘어나는 예금의 최대 금액"을 묻고 있으므로 최초 대출로 생긴 예금까지 포함한 총 예금 증가액을 구한다. 올바르게는 10조 원이다.

⑤ O
- 지급준비율이 10%이면 예금승수는 10이고, 최초 대출액 1조 원이 모두 예금으로 돌아오면 최대 예금 증가액은 10조 원이다. 따라서 ⑤가 맞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지급준비금 1,000억 원, 첫 단계의 재대출액 9,000억 원, 최초 대출액 1조 원, 파생예금만의 증가분 9조 원을 최대 예금 총액과 혼동하게 만드는 데 있다. 현금 누출이 없다는 조건이 있으면 예금승수 전체를 적용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급준비율이 주어지고 현금 누출이 없다는 조건이 있으면 먼저 지급준비율을 소수로 바꾸고, 예금승수 1지급준비율을 구한 뒤 최초 예금 또는 대출액에 곱해 최대 예금 증가액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현금 누출이 없는 단순 예금창조에서는 지급준비율 10%이면 예금승수 10, 최초 1조 원이면 최대 예금 증가액 10조 원이다.

NoteBase

문 21. 물가에 상관없이 결정되는 장기 산출량인 자연산출량의 변동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규모 천연자원의 발견

② 기술 발전으로 인한 노동 생산성 증가

③ 통화량 확대로 인한 총수요의 증가

④ 일인당 자본량의 증가

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장기 자연산출량이 물가수준이나 명목수요가 아니라 경제의 생산능력을 결정하는 실물 요인에 의해 변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연산출량: 가격과 임금이 충분히 조정된 장기에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출량이다.
결정 차이축: 노동, 자본, 천연자원, 기술 같은 실물 생산능력 요인은 자연산출량을 바꾸지만, 통화량 증가에 따른 총수요 확대는 장기에는 주로 물가수준을 바꾼다.
키워드: 장기 자연산출량은 공급능력, 통화량은 장기 중립성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대규모 천연자원의 발견은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량을 늘려 경제의 생산가능성을 확대한다. 따라서 자연산출량의 변동 요인으로 옳다.

② O
기술 발전으로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면 같은 노동과 자본으로 더 많은 산출을 만들 수 있다. 이는 장기 총공급 능력을 높이므로 자연산출량의 변동 요인으로 옳다.

③ X
틀린 부분은 "통화량 확대로 인한 총수요의 증가"이다. 총수요 증가는 단기에는 실제 산출량을 움직일 수 있지만, 장기 자연산출량은 실물 생산능력으로 결정된다. 올바르게는 통화량 확대는 장기적으로 자연산출량보다 물가수준에 주로 영향을 준다고 보아야 한다.

④ O
일인당 자본량이 증가하면 노동자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생산수단이 늘어난다. 자본축적은 노동생산성과 생산능력을 높이므로 자연산출량의 변동 요인으로 옳다.

⑤ O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노동공급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경제의 생산능력을 낮추는 실물 요인이므로 자연산출량의 변동 요인으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③의 함정은 총수요가 증가하면 산출량도 증가한다는 단기 분석을 장기 자연산출량에 그대로 적용하게 만드는 데 있다. 자연산출량은 수요가 아니라 생산요소와 생산성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장기 자연산출량 문제에서는 보기의 요인이 노동, 자본, 천연자원, 기술처럼 생산능력을 바꾸는지 먼저 판단한다. 통화량, 총수요, 명목지출처럼 수요나 명목변수에 가까운 요인은 장기 자연산출량의 직접 결정요인에서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장기 자연산출량은 실물 공급능력이고, 통화량 증가는 장기에는 주로 물가를 움직인다.

NoteBase

문 22. 폐쇄경제 거시경제모형에서 투자가 $I = 500 - 5{,}000r$이고 소비와 정부지출의 합계는 5,000이다. 명목이자율이 0%이고, 2%의 디플레이션이 예상된다. 국민소득은 얼마인가? (단, r은 소수로 표현된 실질이자율이고, 피셔방정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① 5,200

② 5,300

③ 5,400

④ 5,500

⑤ 5,6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피셔방정식으로 실질이자율을 구한 뒤 폐쇄경제 거시경제모형의 산출식에 대입해 국민소득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투자함수는 $I = 500 - 5,000r$이다.
소비와 정부지출의 합계는 5,000이다.
명목이자율은 0%이고, 예상 인플레이션율은 -2%이다.
구해야 할 값은 폐쇄경제에서의 국민소득 Y이다.

사용할 공식

피셔방정식은 $r = i - \pi^e$이다.
폐쇄경제의 국민소득 항등식은 $Y = C + I + G$이다.
문제에서 명목이자율과 예상 물가상승률이 주어졌으므로 먼저 실질이자율을 구하고, 투자함수에 대입해 I를 구한 뒤 $C + G$와 합산한다.

계산 과정

1. 예상 디플레이션 2%는 예상 인플레이션율 $\pi^e = -0.02$라는 뜻이다.
2. 실질이자율은 $r = i - \pi^e = 0 - (-0.02) = 0.02$이다.
3. 투자는 $I = 500 - 5,000 \times 0.02 = 500 - 100 = 400$이다.
4. 국민소득은 $Y = C + I + G = (C + G) + I = 5,000 + 400 = 5,40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계산 결과 국민소득은 5,400이므로 5,200은 틀리다. 틀린 표현 5,200 → 올바르게는 5,400이다.

② X
- 계산 결과 국민소득은 5,400이므로 5,300은 틀리다. 틀린 표현 5,300 → 올바르게는 5,400이다.

③ O
- 실질이자율 $r = 0.02$, 투자 $I = 400$, 국민소득 $Y = 5,400$이므로 맞다.

④ X
- 5,500은 명목이자율 0%를 그대로 투자함수에 넣어 $I = 500$으로 본 경우의 값이다.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면 실질이자율은 0%가 아니라 2%이다. 틀린 표현 5,500 → 올바르게는 5,400이다.

⑤ X
- 5,600은 실질이자율을 -2%로 잘못 보아 $I = 600$으로 계산할 때 나오는 값이다. 피셔방정식상 $r = 0 - (-0.02) = 0.02$이다. 틀린 표현 5,600 → 올바르게는 5,400이다.

계산 결과 국민소득은 5,400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디플레이션의 부호이다. 예상 디플레이션 2%는 $\pi^e = -0.02$이므로 실질이자율은 $0 - (-0.02) = 0.02$가 된다. 이를 0%로 두면 ④, -2%로 착각하면 ⑤가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명목이자율과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함께 나오면 먼저 피셔방정식 $r = i - \pi^e$로 실질이자율을 확정한다. 그다음 투자함수에 실질이자율을 대입하고, 폐쇄경제에서는 $Y = C + I + G$로 합산한다.

암기 포인트

디플레이션은 π^e가 음수인 상황이다. 명목이자율이 0%여도 예상 디플레이션이 있으면 실질이자율은 양수가 된다.

NoteBase

문 23. 중앙은행은 화폐 공급을 줄여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정책을 취할 수 있다. 화폐 공급을 줄일 때 예상되는 변화로 옳은 것은?

① 물가 하락으로 인한 소비 증가

② 정부지출 증가로 인한 총수요 증가

③ 금리 상승으로 인한 투자 감소

④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

⑤ 실업률 하락으로 인한 소득 증가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중앙은행의 화폐공급 축소가 이자율, 투자, 총수요, 소득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긴축적 통화정책: 중앙은행이 화폐공급을 줄여 물가상승 압력을 낮추려는 정책이다. 핵심 경로는 화폐공급 감소 -> 이자율 상승 -> 투자 감소 -> 총수요 감소이다.
이자율과 투자: 이자율이 오르면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므로 기업의 투자는 감소한다.
총수요와 소득: 투자 감소는 총수요를 줄이고, 단기적으로 생산 · 소득 · 고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부분은 '물가 하락으로 인한 소비 증가'이다.
- 화폐공급 축소의 직접적인 효과는 유동성 감소와 이자율 상승이며, 총수요와 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올바르게는 물가상승 압력은 낮아지고 소비 · 총수요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② X
- 틀린 부분은 '정부지출 증가로 인한 총수요 증가'이다.
- 정부지출 증가는 재정정책의 변화이지 화폐공급 축소의 예상 효과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화폐공급 축소로 이자율이 상승하고 투자와 총수요가 감소한다.

③ O
- 화폐공급이 줄면 화폐시장에서 유동성이 부족해져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자율 상승은 투자 비용을 높이므로 투자가 감소한다.

④ X
- 틀린 부분은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이다.
- 화폐공급 축소는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과 시중 유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올바르게는 금융기관의 대출은 감소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⑤ X
- 틀린 부분은 '실업률 하락으로 인한 소득 증가'이다.
- 긴축적 통화정책은 총수요를 감소시켜 단기적으로 생산과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올바르게는 실업률은 상승하고 소득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인플레이션을 낮춘다'는 결과만 보고 소비 · 총수요 · 소득이 늘어난다고 착각하게 하는 것이다. 통화공급 축소는 경기부양이 아니라 긴축이므로, 핵심 효과는 이자율 상승과 투자 감소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앙은행이 화폐공급을 줄인다고 나오면 먼저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판단한다. 그다음 화폐공급 감소 -> 이자율 상승 -> 투자 감소 -> 총수요 감소 -> 소득 · 고용 감소의 순서로 효과를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통화공급 감소는 이자율 상승, 투자 감소, 총수요 감소로 연결된다.

NoteBase

문 24.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해서 통화량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사용하려는 통화관리 방식과 예상되는 통화량의 변화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① 통화관리 방식: 공개시장운영, 통화량의 변화: 증가
② 통화관리 방식: 공개시장운영, 통화량의 변화: 감소
③ 통화관리 방식: 지급준비제도, 통화량의 변화: 증가
④ 통화관리 방식: 지급준비제도, 통화량의 변화: 감소
⑤ 통화관리 방식: 여·수신제도, 통화량의 변화: 감소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이 어떤 통화관리 방식에 해당하는지와 그 결과 통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개시장운영: 중앙은행이 국채 등 유가증권을 사고팔아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정책수단이다.
지급준비제도: 은행이 예금 중 일정 비율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수신제도: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려 주거나 예치받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는 제도이다.
국채 매입은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면서 대금을 시중에 지급하므로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공개시장운영에 해당한다.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대금을 지급하면 시중의 지급준비금과 유동성이 늘어나므로 통화량은 증가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감소'이다. 공개시장운영으로 국채를 매입하면 시중에 돈이 풀리므로 통화량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지급준비제도'이다. 지급준비제도는 지급준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이고, 국채를 사고파는 방식은 공개시장운영이다. 국채 매입의 결과가 통화량 증가라는 부분은 맞지만 정책수단 명칭이 틀렸다.

④ X
틀린 표현은 '지급준비제도'와 '감소'이다. 국채 매입은 지급준비율 조정이 아니라 공개시장운영이며, 매입 대금이 시중에 공급되므로 통화량은 증가한다.

⑤ X
틀린 표현은 '여·수신제도'와 '감소'이다. 여·수신제도는 중앙은행 대출·예치 등을 통한 조절 방식이고, 국채 매입은 공개시장운영이다. 또한 국채 매입은 통화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증가시킨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통화정책 수단의 이름과 통화량 방향을 동시에 바꾸어 놓은 점이다. '국채 매입'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지급준비율이나 중앙은행 대출이 아니라 공개시장운영을 먼저 떠올려야 하고, '매입'은 돈을 시중에 내보내는 방향이므로 증가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공개시장운영 중 매입 조작이고 통화량은 증가한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각하면 공개시장운영 중 매각 조작이고 통화량은 감소한다.

암기 포인트

공개시장운영은 국채 매매이다.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 통화량 증가, 국채 매각은 통화량 감소이다.

NoteBase

문 25. 자본시장이 개방된 경제에서 재정 확대 정책을 시행할 때 예상되는 자본의 이동과 순수출의 변동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① 자본의 이동: 유입 증가, 순수출의 변동: 증가
② 자본의 이동: 유입 증가, 순수출의 변동: 감소
③ 자본의 이동: 변동 없음, 순수출의 변동: 증가
④ 자본의 이동: 유출 증가, 순수출의 변동: 증가
⑤ 자본의 이동: 유출 증가, 순수출의 변동: 감소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본시장이 개방된 경제에서 재정 확대가 자본 이동과 순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재정 확대 정책: 정부지출 증가나 조세 감면처럼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이다.
자본 이동: 국내 이자율이 해외 이자율보다 높아질 때 수익률을 좇아 해외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는 흐름이다.
순수출: 수출에서 수입을 뺀 값이며, 국내 통화가치가 상승하면 수출은 불리해지고 수입은 유리해져 감소한다.
개방경제에서는 재정 확대가 국내 이자율 상승 압력을 만들고, 이는 자본 유입과 통화가치 상승을 거쳐 순수출 감소로 이어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자본의 이동을 '유입 증가'로 본 부분은 맞다.
- 틀린 부분은 '순수출의 변동 증가'이다.
- 실제로는 자본 유입으로 국내 통화가치가 상승하여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고 수입이 늘어 순수출은 감소한다.

② O
- 재정 확대는 국내 이자율 상승 압력을 만들고,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으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해외 자본이 국내로 유입된다.
- 자본 유입은 국내 통화가치 상승을 유발하므로 순수출은 감소한다.

③ X
- 틀린 부분은 '자본의 이동 변동 없음'이다.
-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으므로 재정 확대에 따른 국내 이자율 상승 압력은 자본 유입 증가를 낳는다.
- 순수출 감소가 아니라 증가라고 쓴 점도 틀리며, 실제로 순수출은 감소한다.

④ X
- 틀린 부분은 '자본의 이동 유출 증가'이다.
- 재정 확대 후 국내 이자율이 올라가면 자본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내로 들어온다.
- 순수출 증가도 틀리며, 실제로는 통화가치 상승 때문에 순수출이 감소한다.

⑤ X
- 틀린 부분은 '자본의 이동 유출 증가'이다.
- 재정 확대는 국내 이자율 상승 압력을 통해 자본 유입을 증가시킨다.
- 순수출 감소는 맞지만, 자본 이동 방향이 반대로 제시되어 전체 선지는 틀리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재정 확대가 총수요를 늘리므로 순수출도 함께 늘 것처럼 생각하는 데 있다. 개방경제에서는 이자율 상승에 따른 자본 유입과 통화가치 상승 효과가 중요하므로 순수출은 오히려 감소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개방경제에서 재정 확대가 나오면 먼저 국내 이자율 상승 압력을 확인한다. 그다음 자본은 유입되고, 통화가치 상승 때문에 순수출은 감소한다고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개방경제 재정 확대: 이자율 상승, 자본 유입, 통화가치 상승, 순수출 감소이다.

NoteBase